

약만 파는 곳 아닌 일상 나누는 곳...시골마을 '건강 사랑방'

☯ '한밤의 119' 공공심야약국 <상> 구례 온종일 들여다보니

심야 시간에 전문가 상담과 함께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밤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는 119나 다름없는 곳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쥐도 운영 약국을 찾기 힘들다. 고령화가 심한 전남의 경우 약을 파는 편의점 찾기도 어려워 절실한 공간이지만 없는 곳도 많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도 미지수다. 필수 시설인 전남 공공심야약국을 찾아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보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본다.

지난 27일 밤 9시께 구례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손님 이모(여·81)씨가 찾아오자, 약사 이성규(59)씨는 환한 얼굴로 손님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성규 약사가 "어머님, 요즘 빨리 걷는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하자 이씨는 허허 웃으며 "요즘 기력이 없다 싶었는데, 말씀대로 운동을 더 해야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약국 단골 손님이자 이웃 주민인 이씨는 이곳 약국에 수십년 인연을 맺어온 덕에 서로의 가정사와 몸 상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주치의 친구' 같았다.

특히 올해부터 이 약사가 공공심야약국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밤중에도 응급처치 안부를 나누곤 한다는 것.

이씨는 "이 약국 없으면 급할 때 상담도 못하고 어떻게 약을 사겠나. 누가 잠 안 자고 11시까지 문을 열어주나.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곳 공공심야약국은 다른 약국과 달리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범위 중 3시간씩, 연중무휴다. 정부와 전남도 등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약국은 지역민들이 서로의 따뜻한 일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약국을 찾아온 손님들은 80~90%가 어르신들. 약사 이씨와 안면이 없는 사람이 없을

심야시간 다양한 손님 찾아와
응급상황 큰 도움 '고마운 약국'
차·커피 마시며 정겨운 담소도
전남 11개 시·군서 12곳 운영
지원금 쥐도 운영 약국 드물어

정도였다.

이들은 처방전 약을 타거나 파스 한봉지, 소독약, 청심환 등 상비약을 구입해가면서도 약사와 안부 대화를 나누고는 했다.

폭염특보가 처음 발표된 이날은 더위를 피해 물과 커피를 마시고 가는 사랑방 같은 곳, 시장에 들렀다 지인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역할도 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나", "오랜만에 오셨네. 이 약 가져가서 한 번 드셔봐."

약국 손님들에게 약만 파는 건 아니었다.

커피값이라면서 자두 한 봉지를 건네고 약국에 있는 TV를 시청하는 손님들, 약을 구매하고 바로 드시는 어르신에게 물 한잔 건네는 세심함,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위장약, 혈압약 등을 사러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구례 피아골에서 버스로 30분 걸려 약국에 온다는 김규용(59)씨는 어머니 뇌경색 약과 위장약을 타러 오는 단골 손님이다. 김씨는 약국 직원과 의사



구례군 구례읍의 공공심야약국 '광주약국'에서 지난 27일 밤 9시께 손님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광주약국' 앞에서 지난 27일 밤 약사 이성규씨가 손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에 나란히 앉아 환담을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김씨는 "약사와 직원이 아니라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 같다. 믿고 약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의 활기는 인근 술집을 제외한 가게들의 불이 다 꺼진 밤중에도 이어졌다. 인근 약국들이 병원 문을 닫는 오후 6시께에 맞춰 셔터를 내린 반면, 이 약국은 환하게 불을 켜둔 채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이날만 해도 순천 치과를 다녀온 후 처방전을 갖고 온 손님, 발에 쏘인 알레르기로 응급실을 다녀온 손님,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려온 손님 등 10여명이 아간 시간대 약국을 찾아왔다.

구례 문척면에서 약을 사려고 10분 운전해서 온 손경준(63)·류미란(여·61) 부부는 "낮에 일하다 오면 약국 못 오는 상황도 많은데 시골에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있어 참 감사하다. 밤에 반갑게 찾아왔던 약국이라서 낮에도 이 곳에 오게 된다"고 말했다.

발에 쏘여 응급실을 다녀온 주민 이모(44)씨는

"응급실에는 약을 살 수 없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왔다"며 "집에서 아이들이 배 아프거나 해열제가 필요할 때 심야약국을 이용했다. 주민으로서 밤중에 이용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다. 여러 약국에서도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올해부터 처음 공공심야약국을 시작했다. 매년 심야약국에 관심도 많고 신청하고 싶었지만 연중무휴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부담이 커미루다가 올해 운영해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낮에는 직장일, 농사 때문에 약 사는 것을 놓친 지역민들이 밤에 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했다.

"밤에 문이 열려있으면 손님들이 정말 반가워하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급할 때 응급실은 부담이 되는데 약국에서 손쉽게 약을 상담받고 살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단 11개 시·군, 약국 수로는 12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구례(요일별 나뉘 2곳 운영), 고흥, 보성, 영암, 무안, 신안 등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화순, 강진, 해남, 장흥, 진도, 담양, 곡성, 함평, 영광, 완도, 장성 등 11곳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해 왔고, 작년까지는 도와 시·군비 등 자체 사업비로 운영을 해오다 올해부터는 약사법이 개정돼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을 쥐도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약사들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급할 경우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지원하는 약사가 없어 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골 주민들은 내년에도 밤에 약을 사러 갈 수 있을까.

/구례=글 사진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순천서...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사망사고 잇따라

횡단보도 다 못건넌데 신호 끊겨
좌회전 버스에 치여 70대 숨져
순천서도 2명 사상 등 사고 반복

광주·전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는 등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흥지구입구사거리에서 A(60)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B(여·77)씨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행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B씨가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걷고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지난 23일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친 1 t 화물차 운전자 70대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조

례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따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C씨는 우회전에 앞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달려오거나 건너려는 표현, 제스처만 하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멈춰서야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여수서 정화조 작업하다 2명 질식 사망

식품 가공업체 작업자 쓰러지자 구조하러 간 사장 함께 참변

여수의 식품 가공 업체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다 2명이 질식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여수시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 공장 폐수 배출 시설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작업자와 사장 등 2명이 질식했다.

공장 직원인 60대 A씨가 높이 4m 안팎의 정화조 내부에서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졌고, 이를 본 업체 사장 50대 B씨가 A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잇따라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정화조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1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두 사람은 결국 숨졌다.

이들은 방독면,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정화조 내부에 차 있던 황화수소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